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祝 辭

2018. 3. 22(목)

Intercontinental Hanoi Landmark 72
Grand Ballroom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우선, 오늘 이곳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베트남 중앙은행 레 밉 흥(Le Minh Hung) 총재님과

재무부 등 금융당국 관계자분들,

그리고 양국 금융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님,

베트남 은행협회 응엔 토안 탕(Nguyen Toan Thang) 사무총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양국의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소금융업권과

증권거래소, 예금보험기구 등 금융인프라 기관들이 모여

상호협력과 공동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1992년 국교수립 이후, 40배 이상 급성장하여 한국은 베트남의 2위 교역대상국(수출 4위, 수입 2위)으로, 베트남 또한 한국의 4위 교역대상국(수출3위, 수입 8위)으로 부상(浮上)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2017년 현재 제1위의 對베트남 투자국의 위치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도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15만명 이상의 한국분들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시고, 한국에도 14만명 이상의 많은 베트남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양국의 문화적 교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국민들께서는 K-pop을 넘어 한국 패션, 화장품, 한식 등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한 베트남 영화가 이번 달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고 들었는데, 이는 양국 국민들의 정서적 친밀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과 한마음이 되어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한-베트남 협력의 눈부신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및 한·베 협력의 중요성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아세안(ASEAN) 순방시
그간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한-아세안 관계를
기술,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하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를 핵심가치로 삼아
아세안 국가들이 단순 소비시장이나 생산기지가 아닌
공동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금융위원회도
금융분야에 있어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양국의 경제 상황과 발전의 과정을 볼 때,
특히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인구 약 9천5백만명의 세계 15위 대국으로
매년 6%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금융산업도 이에 맞추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성장가능성과 시장성을 높이 평가한
한국 금융회사들은 아세안 국가들 중
베트남에 가장 많이 진출하여 왕성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 금융산업이
베트남의 경제성장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금융회사들은
과거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과정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 금융당국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실기업과 부실자산 정리 등
기업·금융산업 구조조정 노하우도 축적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핀테크, 금융인프라 산업도
베트남의 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양국은 여러 분야에 있어
상호 협력과 호혜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베트남 금융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가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 금융회사들의 상호 진출과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영업중인 한국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금융, 신용평가, 고객관리 등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고용 확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도 한 차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금융당국간 공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초청연수, 직원파견 등을 통한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분야 국제 논의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은 G20과 FSB 등 국제금융안정과 관련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핀테크 등 최근 국제 논의동향을 베트남과 공유하고, 신흥국의 입장도 국제 논의에 대변하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금융인프라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양국 관련 기관들간 협업을 통해 베트남에 기술평가 시스템과 개인·기업 신용평가 모형 등이 구축되었고,

부실채권 정리, 신용보증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양국 증권거래소가 베트남 증권시장 차세대 시스템을 함께 개발·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후속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교육·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 금융인프라 분야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금융협력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산업은

①핀테크 발전에 따른 탈중개화, ②빅데이터 혁명 등의 구조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자문 서비스 허용과 함께 다양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제체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두터운 청년층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금융위원회는 베트남 중앙은행과 핀테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한국 금융사들과 베트남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지원하고, 양국 관계 기관 및 핀테크 기업들간 교류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래 25년 동안
떼려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베트남 속담에 “투언 버 투언 쯡, 땃 비엔 돔 쑹 깐”
(부인과 남편이 서로 협력하면, 바닷물도 끝까지 퍼낼 수 있다.)
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돈의 나라’인 양국이 서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축구 뿐 아니라 금융도 함께 세계 일류로 도약하는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양국 금융산업을 이끄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금융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포럼이 한·베트남 금융협력을 상징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